



순창군이 전국적 캠핑명소로 발돋움 하기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섬진강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섬진강 캠핑페스티벌 개최

순창군서 내달 3일까지 진행… 요리왕 경연대회·별빛 트레킹 등 계획

순창군이 전국적 캠핑명소로 발돋움 하기위해 오는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섬진강 캠핑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섬진강 캠핑페스티벌은 가족과 함께 캠핑을 즐기면서 지역의 자연·생태체험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알 수 있도록 꾸며진다. 총 30개팀 100여명이 참가하는 행사로 군이 추진하는 첫번째 캠핑 페스티벌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향가오도캠핑장 주변은 물론 강천산, 고추장민속마을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관광지와 특산물 등도 홍보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1일차 행사는 향가오도캠핑장, 향가터널, 향가목교 주변에서 진행된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만드는 요리왕 경연대회, 야간생태체험, 섬진강 별빛 트레킹 외에도 버스킹팀 초청 짜즈, 가요, 동요, 공연도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파노라마 LED 설치로 야간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향가목교와 향가터널에서 진행되는 갈라매주파터도 캠핑 페스티벌의 재미를 더할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2일차 행사에서는 아침 요리왕 시상식과 본격적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을 찾아 강천산의 역사 생태계 등을 설명하고 각자 강천산의 보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오는 '가치 보물찾기' 행사와 순창의 독보적 특산물인

고추장을 체험할 수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과 발효소스토굴 방문 행사도 진행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섬진강 캠핑 페스티벌은 향가오도캠핑장을 전국적 캠핑장으로 만들기 위한 행사다"며 "다양한 행사로 캠핑장은 물론 순창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순창 섬진강 캠핑페스티벌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순창TV 페이스북(www.facebook.com/sunchangTV)을 이용해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전화 063-660-1628번으로 하면 된다. /순창=이양형 기자

임실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 한달간 개최

내달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의결

임실군의의회(의장 문영두)는 21일 오전 10시 심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264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회기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세부일정은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16년도 모든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내달 1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본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내달 21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모든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문영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초유의 국정혼란



에 빠져 국민들이 참담함과 박탈감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임실군의의회는 행정부와 집권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은 물론,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그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동절기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재해대책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동료의원들에게는 "이번 정

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므로, 그동안 축적된 의견 경합을 바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줄 것과 직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지역발전과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 생산 유제품 지리적 표시 해야”

신대웅 군의원, 5분 자유발언

임실군의회 신대웅 의원(나 선거구)은 21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발전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책제안을 했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5분 발언에서 신대웅 의원은 임실치초의 명성을 이어가고, 질적·양적 성장을



위하여 먼저,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에 반드시 지리적 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일부 유가공업체를 제외한 현재의 원유 수급 방법은 타 지역 원유와 혼합되어 납품되므로 교유의 임실 치즈라 말하기 부당스럽고,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 재료의 생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젖소의 사육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현재 제품생산 대비 원유가 부족하고, 수요 확대로 심사숙고 해결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이 갈수록 어렵다"며 생산농가에게 활로를 기대하기 보다는 행정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발행에 신중을 기하자"고 말했다. "군수님의 동량에 대한 미래비전을 심고자 열정을 갖고 계신 것에는 공감하지만, 다가올 엄청난 복지수요, 문화적 수요, 미래 경쟁력 수요에 대비하기엔 우리군 재정이 빈약하다"며, "비록 예산규모는 전반적으로 신장이 되었으나, 2013년과 2015년을 비교해보면 경상이전 예산이 23% 정도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연적이지 않은 경성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긴급 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결 것"을 당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성료

풀코스 남자 1위 노명진·여자 1위 문선미씨

마라톤을 사랑하는 전국 달인들이들의 흥겨운 축제인 '제14회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가 지난 20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한창 레이스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박우정 고창군수를 비롯해 최인규 군의회위원장, 임종혁 체육회 상임부회장, 오시마 유끼오 등 일본 유메마이 마라톤동호회 6명, 박상일 NH농협은행 고창군지부장, 이진태 전북은행 고창지점장과 마라톤 참가선수와 가족, 군민 등 7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특히 최연소 참가자인 부안군의 강성훈(3개월)군을 비롯해 최고령자로 건강(10km)코스에 도전한 수원시 임호연(85)씨, 원사인 북장, 전통의상을 입고 댄 동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고창을 달렸다. 70세 이상 참가자 17명은 노익장을 과시했으며 20인 이상 단체 참가팀도 정읍시마라톤연합회를 비롯하여 온빛매드민턴클럽 등 35개 단체가 참가해 고인돌마라톤대회의 명성을 재확인 시켰다. 이날 풀코스 남자 1위는 노명진(서울 중랑)씨가 2시간 51분 06초, 여자 1위는 문선미(경기 안양)씨가 3시간 12분 50초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인생의 과정과도 닮은 마라톤은 끈질긴 인내와 극기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스포츠"라며 "고창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회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거리를 준비해 청명한 날씨 속에 열심히 뛰어 준 참가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으며, 이봉주 선수와 예루페 선수의 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고창경찰서를 정점으로 모범안전자회, 자율방범연합회, 해병전우회는 전국에서 고창을 찾은 마라토너들이 안전하게 고창코스를 달릴 수 있도록 교통통제를 완벽히 지원했으며, 코스마다 음료수 병사와 함께 지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팽과리, 정을 치면서 활력을 불어 넣었다.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고창을 방문한 선수들은 "여타의 마라톤대회와 달리 고창에 오면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푸근한 인심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고 이쁜답고 청정한 고창을 감상하며 달리는 코스 또한 전국에서 으뜸간다"며, "대회 후에 고창의 특산물도 맛보고 자녀들과 함께 고창읍성과 고인돌유적지도 둘러보고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인생의 과정과도 닮은 마라톤은 끈질긴 인내와 극기로 강인한 정신력을 기르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스포츠"라며 "고창의 아름다운 가을을 만끽하고 열심히 응원하는 군민들의 따뜻한 마음도 느끼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회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실시

순창군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돕기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40일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중점발굴대상은 주소 특자의 사망, 가출, 중환자실입소, 소득이 없는 가정이나, 수급 탈락자, 소독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 등이다. 군은 맞춤형급여 탈락자 및 긴급복지지원 종료자를 사제관리사가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상담 연계식 신속한 현장방

문을 통해 대상자들을 발굴해 갈 계획이다. 또 좋은 이웃들, 순창군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 등과도 협조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읍면 사회복지사와 마을 이장들과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군은 발굴된 사람들에게는 심사를 거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대균 복지회관 회장은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이번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에 내실 있는 조사를 벌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형 기자

남원시, 동절기 수렵장 운영

남원시가 오는 2016년 11월 20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 올해는 도내 3개 시·군(남원시, 정읍시, 원주군)이 수렵장을 운영한다. 이에 남원시는 지난 9월 27일(화)부터 수렵장 사용료 입금 및 서류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개장을 앞둔 현재 총 참여인원은 적석(50만원권) 55명, 청석(20만원권) 494명으로 총인 549명이다. 수렵장 운영은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조류 등)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저감 및 시 세외수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는 한정된 기간 안에 전국 각지의 수렵인들이 남원시로 모이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총소리로 인한 피해 및 총기 오발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렵장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고, 수렵장 기간 내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읍면동에 배부하였다. 이·통장 회의를 통하여 전달되는 안전수칙의 숙지를 통하여 남원시 수렵장이 불의의 사고 없이 운영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국립생태원

임실군, 하수처리 시설 준설공사

임실군이 오는 2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정상운영 및 원활한 수질관리를 위해 준설공사를 실시한다. 이번 준설공사는 슬러지를 정기적으로 준설하지 않을 시 관로가 막혀 하수 역류 및 악취가 발생됨에 따라 주요 소규모 하수처리장 15개소, 중계펌프장 10개소 및 하수관거 2km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사를 통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하수도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지역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현재 소규모하수처리장 30개소, 중계펌프장 106개소 및 하수관로 254km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준설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공장, 초등학생 대상 생태체험

대상(주) 순창공장(공장장 이상주)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는 지난 19일 국립생태원에서 초등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고 생태계에 대한 체험과 배움의 장을 제공하고 자연보존의식 및 생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다.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은 5대 기후를 경험할 수 있는 에코리움관을 견학하고, 사슴생태원 관람 등 특별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어린이들이 융합생태교육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성미(초4) 어린이는 "책에서만 보던 생태계 및 기후를 실제로 경험해보니 더욱 신기하고 다른 기후 및 환경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대상(주) 순창공장은 지역사회환원의 일환으로 올해로 올해로 14년째 순창군 내 어린이를 모집하여, 청정원 어린이회를 운영하였으며,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농촌지역 아이들이 리더십 캠프, 직업체험, 요리문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와 교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순창=이양형 기자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위크숍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오는 25일 해리책마을에서 지역 내 마을공동체회원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 위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위크숍에서는 고창 전역의 동학유적을 답사하고 취재방법론 수업을 통해 답사 과정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해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동학혁명 위크숍을 바탕으로 '고창동학사문(2015년 창간)' 등 관련 매체에 취재기자, 사진기자로도 참여하게 된다. 이번 '동학농민혁명 위크숍'에서는 진문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의 고창동학 특강을 시작으로, 취재방법론 기초과정, 정보준장군 생가터, 무장기포지, 무장읍성, 동학농민혁명홍보관 등 지역 내 동학유적을 답사(취재)하는 일정으로 이어진다. 아울러 책마을해리와 함께 답사하며 취재한 내용을 글과 사진으로 가다듬고 실제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기사를 포스팅하는 과정까지 체험하게 된다. 위크숍 참가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문의는 책마을해리(070-4175-0914), pvilleage@naver.com으로 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